

# 런던협약 제25차 당사국회의 참가결과

---

## 1. 회의 개요

### □ 기간 및 장소

- 기간 : 2003.10.6 ~ 10.10(5일간)
- 장소 : 영국 런던, 국제해사기구(IMO) 본부 회의장

### □ 참가자

- 32개 당사국 대표, 1개 준당사국, 9개국 옵저버, 6개 NGO(옵저버)
- 1개 UN기구대표, 1개 정부간 기구(옵저버)

### □ 우리나라 대표단 (9명)

- 수석대표 : 주영 해양관 윤학배
- 대 표 : 해양수산부 IMO 파견관 정형택  
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행정사무관 김대수  
환경부 하수도과 행정주사보 박창진  
해양경찰청 감시과 선박주사보 백동진  
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홍기훈외 2인
- 옵저버 : 동화개발(주) 대표이사 황보태수

### □ 주요 의제

- '72 런던협약과 '96 의정서 현황
- 런던협약 해석(산업폐기물)
- 향후 신 체약국 홍보 등

## 2. 회의 결과

### □ '72런던협약과 '96의정서 현황

#### ○ 현 황

- 런던협약 가입 및 비준국 : 80개국('03.6.23 현재)
  - 우리나라는 '93.12.21 가입, '94.1.20 발효
- '96의정서 협약 가입 및 비준국 수 : 17개국('03.6.23 기준)
  - ※ 앙골라, 호주, 캐나다, 덴마크, 조지아, 독일, 아일랜드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스페인, 남아공, 스웨덴, 스위스, 트리니다드토바고, 영국, 바누아투, 아이슬란드 (협약당사국 15개국 포함 총 26개국이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)

#### ○ 가입의향을 표명한 국가들에 대하여 준비상황을 점검

- 아르헨티나 : 준비중, 정확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
- 브라질 : 준비중, 정확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
- 중국 : 준비중, 정확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
- 이집트 : 의회 송부중, 늦어도 2004년 예상
- 핀란드 : 2004년 예정
- 프랑스 : 2003년 채택
- 이탈리아 : 2004년 가입예상
- 일본 : 2004년 국회송부 예정
- 네델란드 : 2003년 의회 송부, 2004년 예정
- 한국 : 제도 정비를 포함한 국내 수용체제 구축중

#### <우리나라 발언내용>

- 대한민국은 '96의정서 가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음.
- 다만, 추진과정에서 관련제도의 정비, 각종 조사 등 국내절차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서 정확한 가입일정을 보고하는 것은 곤란하나, 대한민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서에 가입하려고 함

- 싱가포르 : 준비중, 정확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
- 미국 : 2004년 의회송부예정, 2005년 예상
- 벨기에 : '03. 11월 의회송부, 2004년 예정
- 그리스 : 2003년 예정

○ '72 런던협약과 '96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모든 회원국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, 가입을 촉구

○ '96 의정서 비준현황 : 총 18개 서명국, 비준 및 가입국 18개  
(통가 가입, 10월22일자 사무국 서신)

※ 2004년 7개국, 2005년 2개국 이상 → 2005년 상반기 발효 예상

## □ 런던협약 해석(산업폐기물)

### ○ 산업폐기물

- 당사국회의는 해양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을 부속서1에서 허용하는 어느 폐기물 범주에 속하는 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정의에 대하여 과학그룹에 검토 요청
- 과학 그룹은 산업폐기물의 규정을 면제하는 기준을 검토 보고
  - 이 중에서 불활성 지질물질과 천연기원 유기물에 관한 특정 지침의 적합성에 대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해당폐기물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기로 하였음

## □ 향후 신체약국 홍보

### ○ 런던협약 홍보 강화

- 런던협약 당사국들이 '96의정서 가입을 조속히 시행하고, 그 이후 런던협약 비당사국에 대한 의정서 가입을 추진해야함(그린피스)

- 미국·독일 등은 비당사국들과의 상무협정에서 런던협약을 수용하도록 추진할 것
- 유엔환경계획(UNEP)을 적극 활용
  - 사무국에 UNEP과 밀접하게 관계를 구축하여 런던협약을 적극 홍보하도록 주문
  - UNEP의 환경장관회의('04.3.29~31,대한민국)에서 런던협약과 '96의정서를 소개할 것을 건의(스페인)

**<우리나라 발언내용>**

- 동회의의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런던협약과 '96의정서를 촉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.
- 다만, 주요의제는 이미 결정되었고, 상세의제는 UNEP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있는바, 사무국이 UNEP 사무국에 필요한 절차와 단계를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함

### 3. 회의 평가 및 향후 대책

#### □ 회의평가

- 「'96 의정서 가입의 가속화 논의」 등을 위한 회기간 입안 그룹 및 워킹 그룹 등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음.
- 금번 참가국 중 미국, 영국, 캐나다, 스페인, 독일, 네덜란드 등이 당사국회의를 주도하였고, 일본도 1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보 수집 및 자국의 이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함

#### □ 향후대책

- '05년도에 「'96의정서」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준비작업 필요
  - 현재('03.10.22.) 까지 18개국이 '96의정서에 가입하고
    - 프랑스가 연내 가입을 통보할 예정이며, 본 회의에서 5개국이 2004년 내로 가입 의사를 확실히 표명함에 따라 늦어도 2005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

- 각 당사국들은 동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자국들의 수용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이므로,
- 우리나라도 2004/5년 발효에 대비한 국내 수용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

○ 산업폐기물 등 런던협약 해석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(해수부)

- 현재의 해양오염방지법상의 폐기물의 분류를 협약의 분류 체계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삭제하는 등 조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.
- 아래의 항목은 허용 품목에서 제외 검토 필요
  - 별표14제2호“다”목의 “먹는 물 공업용수, 냉각수, 소방용수들의 저장 또는 시설등에서 발생된 것 (액상의 것 포함)”
  - 별표14제2호“바”목의 “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”

○ 런던협약 홍보 강화

- 200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UNEP 환경장관 회의시, 런던협약이 소개(홍보자료 배포 등)될 수 있도록 협조(환경부)